

## 한전, 캐나다 탐사사업에서 고품질 우라늄 다량발견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해온 캐나다 워터베리(Waterbury Lake) 우라늄 탐사사업에서 1~15%에 이르는 세계 최고 품위수준의 우라늄(심도 250M)을 다량 발견했다.

한전을 비롯한 한국전소시업은 2008년 1월 1,500만 불을 투자하여 캐나다 우라늄 탐사 전문회사인 피션 에너지사와 워터베리 탐사계약을 체결 한 후, 총 97개 공의 시추를 한 결과 금년 초 드디어 20여개 공에서 고품위 우라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번 발견은 세계 우라늄의 30%를 공급하는 캐나다 아타바스카(Athabaska) 분지내의 총 250여개 탐사광구 중에서 최근 5년간 고품위 우라늄이 발견된 광구가 3개(한전전소시업의 워터베리, 데니스사의 휠러리버, 해서사의 미드웨스트 NE)에 불과하다는 점과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이 추진해온 4건의 해외 우라늄 탐사사업 중 최초로 경제성 확보가 유망한 우라늄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한전전소시업은 1,500만 불의 기존 탐사비 투자 댓가로 동 광구지분의 50%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가탐사 비용은 한전전소시업과 피션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된다.

## 한전, 제주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 착공



한국전력공사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 중인 제주에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을 짓는다. 제주시 행원풍력단지 내에 3548㎡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종합홍보관을 착공했다.

이 홍보관은 제주 실증단지 내의 스마트 그리드 핵심기술을 한 곳에 선보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 내용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홍보관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발전설비와 송전·변전·배전설비의 지능화 및 사용설비간 연계 시스템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저장장치, 양방향 전력정보 제공과 수요반응 및 지능형 전력거래 시스템 등을 보여준다. 관람객이 직접 전시물을 조작,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전은 7월까지 전시물 상세설계를 마치고 8월까지 전시물을 제작해 오는 9월 30일 스마트그리드 종합홍보관을 준공할 예정이다.

## 신월성 2호기 원자로 설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8일 신월성 건설 현장에서 신월성 2호기에 원자로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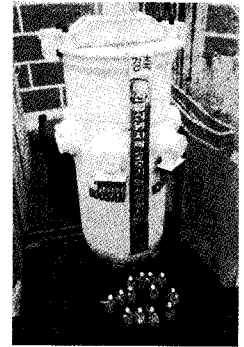
신월성 2호기 원자로는 OPR1000 모델로 직경 4.5m, 높이 14.6m, 무게 약

350t 규모로 연간 약 80억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신월성 1,2호기는 국내 최초로 원자로 내부 구조물과 냉각재 배관을 동시에 시공하는 최신 공법을 적용해 공기를 크게 단축하고 있다.

약 4조7천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신월성 1,2호기는 현재 약 72%의 사업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호기가 2012년 3월에, 2호기가 2013년 1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1천MW급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인 신월성 1,2호기는 우수한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제작돼 안전성과 유지 보수성이 더욱 향상됐고,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수중 취배수방식을 적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원전 건설 및 추가 수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 5,000여명의 원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로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3년간 신입사원 1,000여명을 채용하고 인턴사원 1,000여명을 선발하며, 원전 기술인력은 3,000명 가량을 양성하게 된다. 한수원이 대대적으로 인력양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해외사업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UAE 원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층 실업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 한국수력원자력, 향후 3년간 총 5천명 원전 전문인력 양성기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필수적으로 배출되는 산업 부산물인 석탄재 등을 재활용해 연간 매출액 약 52억의 부가수익을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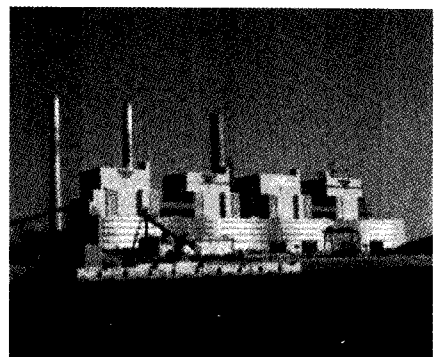
영흥화력본부는 총 시설용량 3340MW급으로 수도권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이다.

하루 유연탄(석탄) 사용량만 2만8000t이고 20t 덤프트럭으로 계산하면 하루 약 1400대 분량이 연소되고 있는 규모이다.

석탄 연소 후 나오는 황산화물을 약 97% 제거해 내고있는 '배연탈황설비'의 촉매제로 '석회석'을 쓰고 있는데, 하루 약 400t 가량을 소모한다. 보일러를 596℃까지 승온해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때, 더워진 터빈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영흥화력본부는 석탄재와 석회석, 그리고 폐수 및 냉각수를 거의 90% 이상 전량 재활용하고 있다.

##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부산물 재활용 52억 수입



## “신나는 놀이동산에서 장애우 아빠되기”



- 한전KPS 한마음봉사단, 한울공동체 봉사활동 실시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이 이색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체장애우들의 1일 아빠가 되어 놀이공원으로 함께 소풍을 떠난 것이다.

지난달 12일 에버랜드에서 열린 봉사활동에는 한전KPS 권오형 사장을 비롯한 한마음봉사단원들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울공동체(원장 안성준) 장애우 13명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원들은 각자 맡은 장애우들과 바이킹 등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동물들이 있는 사파리를 체험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현대중, 美SCE에 변압기 6억弗 수출계약



현대중공업이 미국 시장에 총 6억 달러(약 6천600억원) 상당의 변압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따냈다.

이는 변압기 부문에서 우리 업체가 수주한 것 가운데 역대 최대 실적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현대중합상사와 공동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전력업체인 SCE에 6억 달러 규모의 대용량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SCE에 230KV와 500KV 대용량 변압기를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업체의 최대 변압기 수출 사례는 작년 11월 역시 현대중공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주한 것으로, 2억5천만 달러(약2천900억원)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년간 SCE에 4억 달러 규모의 변압기를 납품하면서 인정 받은 우수한 기술력이 이번에 대형 수주를 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1980년 전력 변압기 수출을 시작한 이래 30년간 1천500대 이상을 해외시장에 팔아온 현대중공업은 현재 북미 변압기 시장에서 40%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변압기 부문에서만 1조원의 매출을 올린 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전력 변압기 생산 누계 60만MVA를 달성한 바 있다.

## 두산중, 두바이서 무재해 2000만 시간 돌파

두산중공업이 두바이 제벨알리(Jebel Ali) M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무재해 2000만 시간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국내외에 건설한 발전플랜트 가운데 최고 기록이다. 특히 발전 플랜트는 일반 공사보다 대형 중량물 운반, 고소작업 등 위험도가 매우 높아 기록 달성의 의미가 크다. 이는 제벨알리 M 발전소 건설현장은 지난해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하루 평균 7000명이 동시에 투입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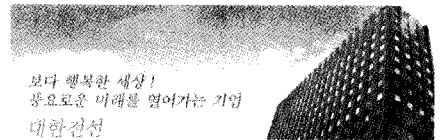
두산중공업이 지난 2007년 수주한 제벨 알리 M 프로젝트는 총 2000MW 규모의 두바이 최대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2007년 8월 착공해 현재 공정진척률은 80%이며,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한전선이 지난 1분기 매출 6159억원, 영업이익 11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4745억원보다 29.8%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81억원에 비해 줄었다.

## 대한전선, 1분기 영업이익 114억원

또 지난 2월 초 매각했던 프리즈미안 지분 매각 등과 관련된 지분법 손실이 반영되면서 2596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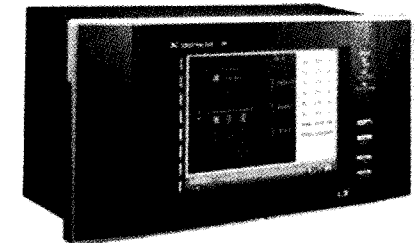
일부 국내 한전 물량과 수출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부가가치가 높은 편인 초고압케이블 물량들이 2분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1분기에 반영이 덜 됐다.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184억원 수준이지만 안양공장 임대료 등이 반영돼 114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또 대한전선의 부채비율은 397.6%으로 지난해 말 대비 48.5% 증가했다.

LS산전이 차세대형 디지털계전기 X GIPAM 시리즈 모델을 6월부터 출시한다.

## LS산전, 차세대 디지털계전기 출시

LS산전의 GIPAM 시리즈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수배전설비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검증된 디지털계전기로, 종합계전, 계측, 모니터링, 통신 및 다양한 부가 기능을 구현한다. X GIPAM의 X는 차세대(neXt)의 의미로, 해외 선진회사 제품과 비교할 때 그 기능과 성능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X GIPAM은 LS산전의 독자적인 계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측 정밀도 향상, 모듈화 구조에 의한 확장성, 편리한 인터페이스, 인공지능의 부가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한글 지원의 터치스크린, Setting Group, 전력품질, 아크보호 모듈 및 통신 이중화 기능을 보유한 점이 강점이다. KEMA 인증을 받은 IEC61850통신은 스테이션, 베이, 프로세스 레벨 기기들 간의 정보교환과 데이터 접근성 및 최적의 시스템 구성으로 호환성, 유연성, 확장성이 뛰어나다.

LS산전은 X GIPAM이 국내 디지털계전기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며 연간 약 100억원의 수입품 대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A